

# 모처럼 지갑 열리나...지역민 ‘소비쿠폰’ 기대감 크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시민들 모임 계획 짜고 가전제품 구입 모색  
영화·숙박·전시 등 5대 분야 할인쿠폰도...소상공인 ‘쿠폰 특수’ 기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쿠폰’, ‘5대 분야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실시하는 데 따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에 밥 한 끼 사먹기도 부담스럽다며 지갑을 닫았던 지역민들은 최대 50여만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받게 된 데 따라 그동안 엄두를 못 냈던 회식과 모임 계획 등을 짜고 있고, 소상공인들 또한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력이 돌지 않을까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지역 상품권과 비슷하게 각종 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지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다.

이르면 2주 내로 1차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역민들은 소비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의 쿠폰을 받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받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감안하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업종도 대형마트 등을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5대 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영화·숙박·미술 전시·공연예술·스포츠시설 등 분야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숙박 쿠폰(50만 장 발급)은 1인당 1박당 2만~3만원이 할인되는 쿠폰이며, 영화 쿠폰(450만 장)으로는 영화 관람 8월부터 1회당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최대 6번 할인이 가능하다. 미술 전시 쿠폰(160만 장)을 사용하면 1회당 3000원씩 2차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연예술 쿠폰(50만 장)을 사용하면 1회당 1만원씩 두 차례 할인된다. 스포츠시설 쿠폰(70만 장)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으며 5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화·숙박·미술 전시·공연예술 등 4개 분야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제휴 사이트 등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를 염두에 뒀다면 다음 달 이후부터 사야 할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품목)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민들은 이같은 소비 진작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소비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하순 지역민인 김연아(여·32)씨는 “소비쿠폰으로 25만원 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그간 나날이 가격이 올라 부담스러웠던 식비를 보태는 데 쓸 계획”이라며 “특히 ‘할인쿠폰’ 중 숙박 쿠폰을 오픈런을 해서라도 받고 싶다. 휴가철을 맞아 좋은 숙소를 가고 싶은데, 숙박쿠폰 할인 비율도 상당하니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김의숙(31·광주시 북구 임동)씨도 “15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식료품을 사는 데 쿠폰을 써서 생활비를 줄여 볼 계획이다”며 “단순한 소비 활동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태

성씨는 소비 쿠폰으로 ‘쿠폰 특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비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는데 오랜만에 ‘대목’을 맞은 것 같다는 것이다.

정씨는 “계엄령 이후부터 계엄령 이후부터는 희식이 취소돼 연말 특수를 하나도 노리지 못했는데,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다시 소비가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최소 10% 정도는 매출이 오를 것 같아 미미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이나 제도 때문에 폐업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터라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업들로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고 내수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한시적인 소비 촉진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지하철공사로 건물 균열...불안해서 못살겠다”

광주 공사현장 인근 상가 입주민들 “10차례 이상 균열 메워” 주장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의 한 상가 건물 입주민들이 지난 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서구 운천로 124번지의 3층 상가 입주상인들은 지난 20일 지하철 공사 이후 지난 침하가 발생하면서 뒷면의 벽체가 떨어지고, 담장이 갈라지는 등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건물은 2007년 지어져 1층엔 바리스타 학원, 2층에 명상원, 3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뒷쪽은 바닥 시멘트가 솟아오르면서 출입문을 열거나 닫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마감재로 쓰인 대리석은 건물과 분리돼 틈이 10cm 이상 벌어져 있었다. 지난해 5월 6cm였던 간격은 지난해 7월 6.5cm로 커졌고 올해 더욱 벌어졌다는 것이 입주민들 주장이다.

건물 뒷편 창고와 이어지는 바닥의 균열도 10차례 이상 시멘트로 매웠으나 계속 갈라져 현재 폭 12cm까지 균열이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서는 냉장고가 앞쪽으로 기울면서 유리벽이 깨지고, 지난해 2월에는 배수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도시철도 2호선 정류장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와 불과 1여m 떨어져 있다. 해당 공사지점은 지하 10m 이상 굴착이 진행될 상태다.

건물 소유주인 양재근(81)씨는 “고쳐도 고쳐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당장 시공사 측이 세 차례 수리했지만 바닥 단차를 깎는 방식의 임시 조치뿐이었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똑같이 이제 또 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찾은 광주시 서구 운천로의 한 상가 담장이 갈라져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지반침하 15mm, 지하수위 4m, 지중경사계(굴착 깊이×1.8mm), 건물경사계 (±0.057°) 등 계측값이 ‘1차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안전평가 기준상 ‘안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측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현장 민원에는 가능하면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의 퇴매우기 공정 및 포장 공사는 오는 9~11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본부는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실제 균열·침하가 공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민원은 지난 2022년 588건에서 2023년 594건, 2024년 674건으로 늘었고, 2025년엔 5월까지 벌써 602건이 발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아침을 여는 ‘등곳길 음악회’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등곳길 음악회’가 열렸다. 교내 오케스트라 ‘아우름’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악 연주를 선보이며 아침을 열었다. 등곳길 음악회는 2021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尹 체포영장 이번주 결론...서부지법도 촉각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

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주도권을 잡은 상태다.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은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체포 저지·비화론 서버 삭제 의혹 등 경찰이 새롭게 인지해 벌인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특검의 시계는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소명 가능성 등 실제적 요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최대 170일)과 법이 정한 구속 기간(1심 최대 6개월) 등 절차적 부분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논의가 떠오르며 서울서부지법도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지난 1월처럼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특검을 거쳐 청구된다면 체포나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